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 추진 순항

진안군, 조성사업 추진현황·지역 상생사업 등 논의

진안군은 10일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림청, 전북도, 진안군, 무주국립관리소, 서부지방산림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립지역권산림치유원(이하, 산림치유원)은 2024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분기별로 1번씩 꾸준한 조성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들은 조성협의체 회의를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 및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다양한 지역 상생사업을 논의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청이 현재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이 진행 중이며 2023년에는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1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진안군은 주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 방안과 더불어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백운동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과 같은 지역연계 사업에 대해 제시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라북도는 신광재, 데미샘휴양림, 그린장수 치유의 숲 등 치유원과 주변 자원을 연계해 개발할 계획에 있다.

최용주 진안군 산림과장은 "진안군은 지역권산림치유원의 단순한 사업 대상지가 아닌 동등한 사업 동반자로서 함께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들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성협의체 회의에서도 저희가 수렴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현안사업 적극 건의

장영수 장수군수,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 등 지원

장영수 군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방문해 전북 동부권의 농산물 수집 및 분산의 핵심을 담당할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인력 감소, 지속적인 인구감소, 고령화 가속에 따른 농촌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최초 전북 동부권 비대면 농산물유통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사업비 500억원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 일원에 거점산지유통센터 APC(기운영), 레드푸드융복합타운(조성중)과 연계한 농축산물 종합유통 센터를 건립해 비대면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 B2C(기업-소비자 간 전자상거래), O2O(Online to Offline)를 핵심

개념으로 한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을 조성하고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미래 농촌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는 농산물 공판장, 체험판매장, 저온저장시설, 신선편의 가공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지원편의시설 등 6개동 1만5,000㎡의 시설 설치와 오픈광장, 승마 산책로 등의 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공판장(B2B기준)취급량은 연간 총 3만155톤 규모로 추정, 유통센터 내 체험판매장은 오프라인(지역주민, 관광객) 및 온라인(온라인구매) 판매를 병행해 총 108.7억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올해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농산물 스마트 융복



장영수 군수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해 농산물 스마트 융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합타운 조성사업이 동부권을 대표하는 농산물 거래의 거점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유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농산물 유통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등 3개 사업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진안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가 건의한 사업은 ▲K-홍삼 D.N.A.(Digital.Network.Ai) 혁신 플랫폼 구축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소태정 터널) ▲진안군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 등 3개 사업이다.

전 군 대표 K-뉴딜사업으로 계획 중인 K-홍삼 D.N.A. 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진안군을 대표 특화산업인 홍삼산업의 세계적인 메카로 육성하고자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중인 사업이다.

또한 전 군수는 용담댐 건설로 인해 경지면적 감소, 기후변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 군민들이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작 많은 군민들이 상수도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역현실을 호소하면서 전 군민이 사용 가능한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군수가 군민을 대표하여 건의한 진안군 현안사업들에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고향발전을 위해 해당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시장' 문화관광형 최우수시장

육성사업 추진결과 평가서 최고 등급 받아 2차년도 사업비 5억원 확보

무주반딧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한 전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차년도(2020) 추진결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를 받아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무주반딧불시장은 2차년도(2021)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무주반딧불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로 지난해 4월과 7월 임시 폐장해 불황을 겪기도 했지만 장기화 상황에 걸 맞는 언택트 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농·특산물 특화장터와 '체험하Go~! 장보Go~!' 운영, SNS 홍보활동, 특화 먹거리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주군 황인홍 군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된 전국 30개 시장 중 무주반딧불시장이 당당히 1등을 했다"며 "사업비도 다른 시장들보다도 8,000만원이나 더 받는 만큼 올해 사업도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시장은 사업 2차년도인 올해 농·특산물 공동판매장을 조성해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할 예정으로, 1차년도 추진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별보Go~!', '장보Go~!' 야시장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가로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무주반딧불시장 박용식 상인회장은 "힘든 시기에 상인들이 협력했기 때문에 최우수시장에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기반 구축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반딧불시장(장날 1, 8일)은 무주를 장터로에 위치해 있으며 각종 채소와 과일, 생필품을 파는 노점을 포함해 150여 개 점포가 현재 운영 중이다.

어죽과 순대국밥, 보리밥, 장터국수 등이 대표 먹거리로 꼽힌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반딧불 복합주차타워 건립 주차장 외 주민편의시설 등 조성)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커뮤니티와 여가활동 거점 탄생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발족

무주군은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무주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발족하면서 선정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발대식을 통해 무주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와 계획을 수립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을 앞두고 반드시 발족해야 하는 주민 자율형 단체로, 무주읍이장협회 김진성 회장을 비롯해 위원 23명이 참여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간의 화합과 교감을 통해 가고 역할을 수행하고 자발적 참여를 결의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 위원들은 정기·임시회의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도시재생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

고 계획과 수립, 변경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활동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성공 추진 전략에 맞게 무주읍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공동체 활동을 통한 공감대 형성, 주민 간 갈등 조정,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 등 도시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는 도시재생 사업 발굴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읍에 활력을 부추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주민주도의 사업,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생사업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무주군과 무주읍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오는 12월, 국토교통부가 각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별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집중홍보

진안군은 부숙도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가축분뇨 퇴비를 논·밭에 뿌릴 수 없게 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에 집중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 준비가 미흡한 축산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고, 오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액비 관리대상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민약 기록·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1층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실시, 시료는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그 중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해 직접 기술센터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제휴카드기금 4500만원 전달

지역 금융기관과의 제휴카드 체결이 세수증대와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등 열악한 지방 살림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무주군은 지난 8일 군수실에서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로부터 지난해 제휴카드 기금 4,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적립기금은 카드사용에 따라 일정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마련했다.

포인트는 지난해 동안 ▲법인카드 ▲보조카드 ▲공무원복지카드 등 총 이용금액의 0.1%~1%를 적립해 군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휴카드 기금 발생 누계액은 3억8,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군은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을 돌려받아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